

8장 제사장의 임직식과 위임식

제사 제도에 대하여 1-7장에서 가르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이야기가 기록된다.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 후에 제사장 규례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고,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이 위임식 직후에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모세의 율법이 단순한 법전 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보여 주신다.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에 대한 여호와와 명령이 서술되고 9장에서는 위임식 과정을 기록하였다. 10장에서는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여호와와 징벌이 시행된 것을 기록하였다. 제사장이 위임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와 불로 침을 받았다. 여호와께 나아오는 제사를 시행하는 첫날에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려준다. 하나님께 나아오되 주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만 나아오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1. 여호와와 두 가지 명령 (8:1-5)

제사장의 임직을 위하여 두 가지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첫째, 임직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 의복, 관유, 수송아지, 수양 둘, 무교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둘째,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하였다. 제사장의 임직식은 온 회중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단지 백성의 장로만이 대표자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참여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제사장 임직의 규례를 회중에게 전하였고, 회중과 함께 임직식을 거행하였다.

2. 아론과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힘 (8:6-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1) 물로 씻겼고, 아론에게는 (2) 흰색으로 된 두루마리 속옷을 입고 (3) 띠를 띠우고 (4) 청색 겹옷을 입고 (5) 에봇을 몸에 매고 (6)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뭉을 넣도록 하였다. (7) 의복을 갖추어 입은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진 금패를 붙인 관을 씌웠다.

이제 그는 백성을 대표하여 여호와께 나아갈 것이었으나 그 전에 관유로 거룩케 될 필요가 있었다.

3. 기름을 부음 (8:10-13)

모세는 관유를 취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먼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 기름을 일곱 번 뿌리고 그 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의 머리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제사장도 성막의 일부처럼 동일하게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흰색의 속옷을 입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웠다. 제사장은 흰색 속옷 위에 청색 겹옷과 에봇을 입었으나 그의 아들들은 흰색 옷을 입고 임직되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다.

4. 제사를 드림

1) 속죄제를 드림 (8:14-17)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에 안수하자 그 소를 잡고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내장과 그 부근의 기름은 모두 단 위에서 사르고, 가죽과 거기와 똥은 모두 진 밖에서 살랐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이다. 제물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장막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쏟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사르도록 규정하였는데(4:3-12), 그대로 시행하였다.

2) 번제를 드림 (8:18-21)

임직식에서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렸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자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번제의 규례를 따라서 전체를 불살라서 여호와께 화제(음식 제사)로 드렸다.

3) 화목제를 드림 (8:22-29)

위임식의 셋째 제사는 화목제이고 여기에서 위임식은 절정에 이른다. 이 때에 위임식 수양의 피를 오른쪽 귓 부리와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제단 주위에도 뿌렸다. 속죄제와 번제에서는 피를 제단에 바 르거나 뿌렸는데 그 위임식 제사의 피는 아론과 아들에게도 바르고 그 후에 피를 단 주위에 뿌렸다. 이로써 아 론과 그 아들들은 제단의 일부로 여김을 받았다. 그들은 제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된다. 그들은 개인 이 아니라 ‘기관’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그 일은 자동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뿌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손과 발로 행하는 일에서 주님께 자신을 드림을 표시한다.

모세는 그들에게 피를 바른 후에 두 가지 요제를 드렸다. 첫째, 내장의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무교병 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여 요제로 삼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요제물을 취하여 번제 로 드리는 곳에 다 살라서 드렸다.

둘째, 아론이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여 요제로 삼았다. 그 위임식 수양은 위임식 제사를 집례한 모 세에게 응식으로 주었다. 후에는 제사장 아론이 요제를 드리고 응식을 받았겠지만 위임식 제사에서는 모세가 그 들의 제사장으로서 응식을 받았다.

5. 위임식에 대한 명령 (8:30-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였는데,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였다. 이제 그들은 기름과 피가 뿌려진 의복을 입고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었다.

기름과 피가 뿌려진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위임식의 고기와 위임식 광 주리의 떡을 먹는 일이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주신 음식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 면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들이 처음 수행한 일이었다.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평안함 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것으로 시작된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칠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위임식을 행하여야 하였다. 출애굽기 29장을 따르면 그들은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였고, 매일 번제도 드렸을 것이다(출 29:36, 38-41).

묵상과 실천:

임직의 의미, 여호와의 명령과 순종

1. 임직의 의미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공 이야기로 끝나고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섯 가지 제사에 관한 규례로 시작한다. 이제 관심은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임직으로 향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되는 것은 성막을 짓는 뜻이 성취되는 중대한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의 임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 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⁴⁴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⁴⁵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⁴⁶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9:43-46) 하고

말씀하셨다. 제사장의 위임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할 책무가 있었다.

2. 여호와의 명령과 순종

제사장의 임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로 시작하고(8:1),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는 말로 마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곱’이라는 숫자이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오는데(8:4, 9, 13, 17, 21, 29, 36) 이것은 출애굽기 25-31장에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이 일곱 번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다. 7일 창조의 완성이 바로 성막과 제사장의 위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제사장의 위임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음, 기름을 성전의 기구에 바른 후에 제사장의 머리에도 바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의복을 입은 제사장은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성전 기구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신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사람에게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무능함과 성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약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폐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갈보리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되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은 골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그 뜻이 완성된다. 그분은 우리도 그 일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의 참여를 통하여 창조와 구속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면서 살도록 초청하신다. 이러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일이 된다.

8장 익힘 문제

1. 제사장의 위임식 때 회막 문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절)
2.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6절)
3.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10-12절)
4.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드린 네 가지 제사는 무엇입니까? (14-29절 6:20-21)
5. 제사장의 위임식 날 모세는 무엇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습니까? (30절)
6. 1) 제사장의 위임식은 얼마 동안 행하여졌습니까? (33절)
2) 그동안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까? (35절)
7.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때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4, 9, 13, 17, 21, 29, 36절)